

#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전형

## -인문 · 사회계열 및 간호(인문)-

### 문항 1

정치에 대해 (가)가 바라보는 관점을 (나)의 관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 (가)

민본주의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즉 국가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민본주의 이념은 일찍이 공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공자는 아버지가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듯, 군주는 인(仁)으로 백성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공자가 중시한 덕치예교(德治禮教)의 이념에는 민본주의 정신에 내재한 도덕성이 잘 나타난다.

맹자는 군주의 덕으로 인을 베푸는 왕도 정치를 제시하여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군주가 백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을 돌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군주를 바꾸어서라도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천명(天命)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지 않는 부도덕한 통치자에 대하여 백성의 참정 및 저항 가능성을 용인한 까닭은, 정치의 본질이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본주의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민본주의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민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理想)과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통치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본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동일한 정치 이념이 동서양 사회의 사상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각각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민주 정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근거하여 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 정치는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것, 즉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는 신이 지배하는 신정이나, 왕이 지배하는 왕정, 철인이 지배하는 철인 정치 등과는 달리,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 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민주 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인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 정치는 신분, 재산, 성별,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 정치는 하나의 정치 방식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다수 또는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 또는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로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이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정치와도 뜻을 같이한다.

## 문항 2

(가), (나)에 나타난 노자와 베이컨의 차이를 자연관과 지식에 대한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 (가)

노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 원리나 절대적 실체를 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로 보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험적 지식이나 사유, 제도와 문화 등은 오히려 참된 삶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욱 혼탁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곧 무위자연의 세계를 지향하며 절대적 실체인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노자가 볼 때 인간은 태생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가지고 있으나, 사물의 겉모습이나 형식에 이끌려서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지어낸 지식이나 사유, 제도와 문화 등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참된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을 없애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즉 도가 실현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나)

과학이 전문적인 학문 분야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과학을 통한 자연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존의 불합리한 사고와 편견을 없애고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인간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 계몽주의는 무지한 인간이 성숙한 이성을 통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이성의 힘이 강조되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의 탐구는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이 지닌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자각하고 강조한 사람은 베이컨이다.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객관적이고 참다운 지식으로 보고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 지식을 통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의 이해를 넘어서 자연을 제어하고 변형, 조작성으로써 인간 생활에 분명한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항 3

(가)와 (나)를 참조하여, 방송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 노출을 규제하는 법에 관한 수험생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논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방심위는 규제 신설의 이유로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할 수 있거나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예능 방송 관계자는 노출 패션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모 평론가는 “미성년자 연예인의 의상이나 노출, 안무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출연자가 자율적으로 정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2년 9월 25일 -

#### (나)

의복은 자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의복으로 개성을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복에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반대로 의복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검소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검소한 의복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검소한 의복은 검소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복은 제2의 피부로서 자아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복은 예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다. 어떤 사회이건 예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의복에도 적용된다.